

‘수요예측 1경’ LG엔솔 청약, 비례 배정은 KB증권이 유리



국내 IPO 최초 경 단위 투자주문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전략 관심

50% 균등, 50% 비례방식 배정
물량 많은 KB·신한·대신증권 유리
마감일 경쟁 낮은 곳 청약도 방법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 주문금액이 1경원(1조원의 만 배)에 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아니지만 경 단위의 투자 주문이 쏠린 것은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이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2201조원(전날 증가기준)의 4.5배에 달한다.

지난 최대 주문액인 카카오뱅크 2585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LG에너지솔루션 IPO 일정〉

청약일정	2022.01.18~2022.01.19	공모가	257,000~300,000원
경쟁률	미정	진행상태	수요예측
상장일	미정	주관사	KB증권, 모건스탠리(서울지점)

역대급 IPO를 공략하려면 막판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청약일 전 승산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해 증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대표 주관사인 KB증권,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약 당일엔 계좌를 개설해도 참여가 가능한 증권사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다.

다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

증권은 전날인 17일까지 미리 계좌를 개설해줘야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에게는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5000~1275만주가 배정된다. 25%가 배정된다고 예상했을 때 증권사별 물량은 KB증권이 486만9792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각각 243만4896주를 차지한다. 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은 22만1354주로 물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집 주식 수의 50%를 균등 방식으로, 50%를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13일 “물량이 많은 KB증권, 신한, 대신이 유리할 수 있다”

며 “나머지 증권사는 다른 곳에 비해 고객 수가 적고 LG엔솔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정보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객 수가 적은 편이어서 투자자가 덜 몰릴 수 있으며 청약은 마지막 날에 쏠리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 관망하다가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이투자증권의 계좌수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10% 가량 상승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10월 기준 계좌수는 77만2245개로 나타났고 11월과 12월은 각각 79만7349, 84만8628개, 1월10일 기준 계좌수는 85만7159개로 집계됐다.

증권사들도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LG엔솔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60조~70조원 사이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적정 시가총액을 101조원으로 전망했다.

실제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는다면 이는 삼성전자에 이어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은 14.5% 이하로 이에 더해 기관 보호예수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며 “상장 후 각종 지수 편입이 확실시 되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잔고는 260조원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주잔고에 기반해 LG에너지솔루션의 생산능력은 2025년 약 418GWh(기가와트시)까지 확대돼 국내 경쟁사들과 2배 이상의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4일 공모가를 확정 공시한다. 이어 18~19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이후 27일 상장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韓기업 최초 美 상장사 LBO 성공

DL 이해육의 매직... 글로벌 M&A 새 역사

크레이튼 인수자금 3조 마련
글로벌-국내 자금 전략적 결합

DL그룹 이해육 회장이 한국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M&A) 역사를 새로 썼다.

DL그룹 계열사인 DL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미국 상장사를 차입매수(이하 LBO·Leverage Buyout) 방식으로 인수한다.

DL케미칼은 크레이튼(Kraton)사의 인수금융 확보를 위해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9억 5000만달러(약 1조 1200억원)를 확보한 데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 인수 발표 후 2개월 만에 자체 보유한 현금을 포함해 3조원의 인수자금을 모두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

이번 인수작업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LBO를 활용한 이해육 회장의 M&A 전략이다. 국내 회사가 미국 상장회사 인수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미 오하이오 주 벨프레(Belpre)에 위치한 크레이튼사 SBC 생산 공장.

또, 글로벌 자금과 국내 금융시장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초단기에 금융조달을 마무리한 새 방식은 향후 국내기업의 M&A 지도를 미국 등 해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평가다.

LBO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10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담보대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DL케

미칼은 LBO 금융에 국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한 인수금융을 접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과 크레이튼의 부채비율까지 함께 낮춰 양사의 재무건전성균형을 유지하는 선진 금융기법을 글로벌 M&A 시장에서 선보였다.

M&A업계 관계자는 13일 “이해육 회장이 한국기업 최초로 미국 상장사 LBO 성공이란 쾌거를 출범 첫해에 이뤄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M&A 역량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지난해 펀드 순자산 832조... 111조 증가

금투협 ‘2021 펀드시장결산’
해외주식펀드 22% 증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831조9000억원, 설정액은 788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각각 111조7000억원(15.5%), 93조 8000억원(13.5%) 증가한 수치다.

13일 금융투자협회는 ‘2021년 펀드 시장 결산’을 발표했다. 파생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입됐으

며, 지난해 전체 펀드시장에 총 66조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37조4000억원(13.6%) 증가한 312조1000억원, 사모펀드는 전년 말 대비 74조 3000억원(16.7%) 증가한 5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해외주식펀드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순자산 총액은 1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0조 1000억원(22.1%) 증가했다.

채권형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였으나, 순자산 총액은 전년 말 대비 11조9000억원(10.1%) 증가한 129조8000억원으로 마감했다.

혼합채권형은 공모주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뤄졌다. 순자산 총액은 23조8000억원으로 세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46.8%)을 기록했다.

파생상품은 고난도 제도 도입 등으로 유일하게 자금 순유출이 일어났다. 순자산 총액은 50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올 서울 아파트 5.4만여 가구 공급

작년 계획물량보다 두배 많아
전체의 87%가 정비사업 물량

올해 서울에서 총 59개 단지, 5만 4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해 계획됐던 물량(2만5000여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시장을 통해 5만4445가구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의 일반분양 가구는 1만9305가구다.

올 서울 공급가구 중 49.6%인 2만 6989가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민간 아파트 기준, 임대제외)이다. 또한 재개발 정비사업 물량은 2만623가구로 37.9%를 차지한다. 서울 전체 물량의 87.4%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셈이다.

SH, LH 등의 공공분양을 제외하고 매년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의 80~90%를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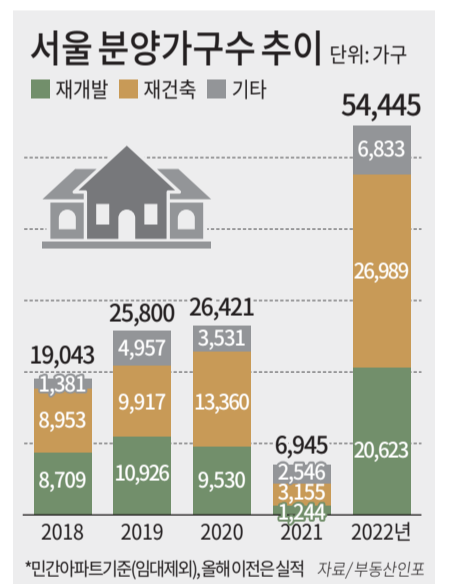
그만큼 서울에서는 순수하게 민간이 부지를 마련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귀하다는 의미다.

올해 계획된 5만4400여 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5000여 가구는 지난해 분양 계획에 잡혔다가 일정이 연기된 곳이다.

일정이 미뤄졌던 대표적인 곳은 강동구 둔촌중공 재건축, 반포동 래미안 원 펜타스, 서초구 방배5구역, 동대문구 이문2구역 등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 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외의 물량이 많이 공급되는 경우는 공공택지를 통해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다.

최근 7년사이 서울에서 아파트가 공급된 대표적인 공공택지는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오금보금자리지구, 구로구 향동지구, 중랑구 양원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강동구 강일지구 등이다.



현재는 이들 공공택지 분양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2020년에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정비장, 중랑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등에 1만가구 안팎, 옛 서울의료원부지에 3000가구 등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과 비교해 신규 택지 아파트 공급은 쉽지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는 지난해 분양하지 못한 물량이 대거 포함돼 서울 분양시장은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는 상반기 강동구 둔촌중공 재건축아파트가 꼽힌다. 지난해 서울 분양물량 급감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힐 만큼 일반분양가구가 4700여가구에 달한다.

이외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 펜타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 성동구 행당동 행당7구역, 서대문구 흥은동 흥은13구역, 서대문구 영천동 영천재개발 등이 올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규성기자